탐방

유화산업 (주)

올해로 창립 20주년,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

덕산유화 인수 멀티팩으로 새로 설립

1976년 설립

국내 연포장가공업체들은 아직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업체가 그 수의 대부분이며 일부 업체들이 오랜전통을 통해 기반을 쌓고 품질의 우수성을 확보하고 있는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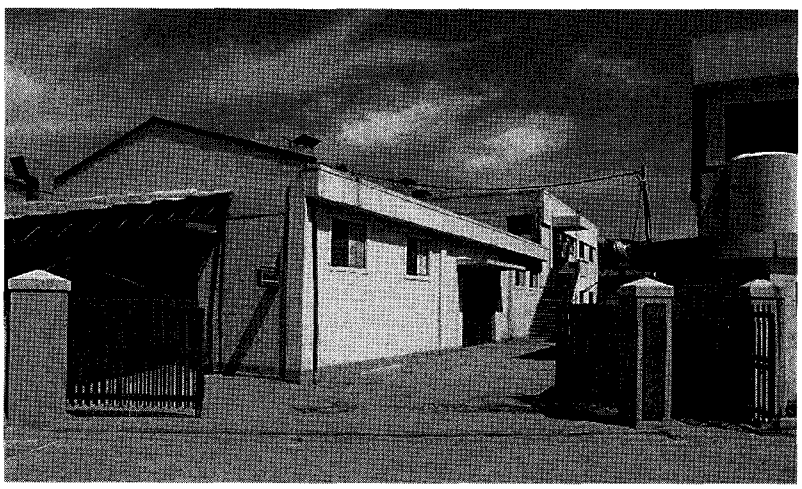
업계의 공통적인 과제이지만 투자 개발에 쏟을 여력보다는 납기 맞추는데 급급한 실정이라 빠른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히 제품을 공급해서만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 안정된 품질을 공급해야만이 업계에서 살아 남을수 있게 됐다. 업체의 형태도 영세성을 벗어나 차츰 체계를 갖춘 업체들이 늘고 있어 전반적인 업계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지난 76년 성동구 성수동에서 처음 태동하여 지금의 부천으로 이전하여 성장하고 있는 유화산업주식회사의 오늘이 있기까지 정임국 사장 이하 전 직원이 걸어온 길은 결코 탄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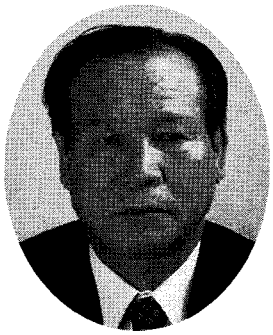
지퍼백 국내 첫 생산

"저희 유화산업 주식회사는 76년 5월1일 성동구에서 시작하여 올해로 20주년을 맞아 남다른 의미를 갖는 해입니다. 이곳 부천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종업원도 90여명으로 늘어났으며 2개의 가공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라고 소



◀ 부천에 위치한 유화산업 전경

▲ 유화산업이 인쇄한 식품포장지



▲ 정임국 사장

개하는 정임국 사장은 유난히 검고 강해 보이는 외모를 소유하고 있었다.

조금은 비좁아 보이리 만큼 적재해둔 제품들이 공장내를 가득 메우고 현장안에서 들려오는 기계 소리는 유화가 건재함을 증명이라도 하듯 요란스럽게 돌아가고 있었다.

유화는 주로 식품포장지 인쇄, 하이배리어성 포장재 생산, 스탠딩파우치, 지퍼파우치, 레토르트파우치, 이지오픈탑·Bottom 필름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특히 지퍼백은 그간 일본에서 수입되어 오던 것을 95년초부터 국산화하여 유화가 직접 생산하고 있어 원가절감과 수출경쟁력력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고있는 품목이라 한다.

유화는 올해 9월 덕산유화의 대지, 공장, 건물, 기계를 모두 인수하여 합성수지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업계의 관심을 사기도 했다.

전라남도 담양군 우정면 우정공단내에 자리잡은 이 회사는 인수와 함께 회사명도 주식회사 '멀티팩'으로 바꾸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중이다. 보유설비로는 독일 라이펜하우저(Reifen häuser)의 3층 압출기로 LDPE, LLDPE, EVA, Surlyn수지를 가공하여 년간 3500톤 생산이 가능하다.

내년안으로 ISO인증획득

〔표 1〕 주요설비 및 시험기기

시 험 기 기	주 요 설 비
열접합착성 측정기	Roto gravure prnting press 3대
인장강도기	Extrusion Laminator 2대
진공도 테스트기	Dry Laminator 1대
GC기	Multilayer film 1대
시료채취기	Pouch sealing Machine 8대
헤이즈메터(흐림도 측정기)	Siltter 4대
두께측정기	Round cutter 1대
	Center sealing machine 1대
	Zipper making machine 1대

사업이 더욱 확장되고 이에따른 품질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유화는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 일본 Cemi-Pack Engneering으로부터 전사원 기본, 기술·개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매출액의 30%를 미주, 남아메리카, 캐나다, 동남아, 유럽 등 9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앞으로 내수시장의 한계성을 인지하여 수출의 판로를 개척할 계획이다. 더욱이 이를 위한 준비로 품질안정을 위해 내년안으로 ISO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알찬 계획도 가지고 있다.

▲ 유화는 앞으로 리필파우치 제품 생산에 주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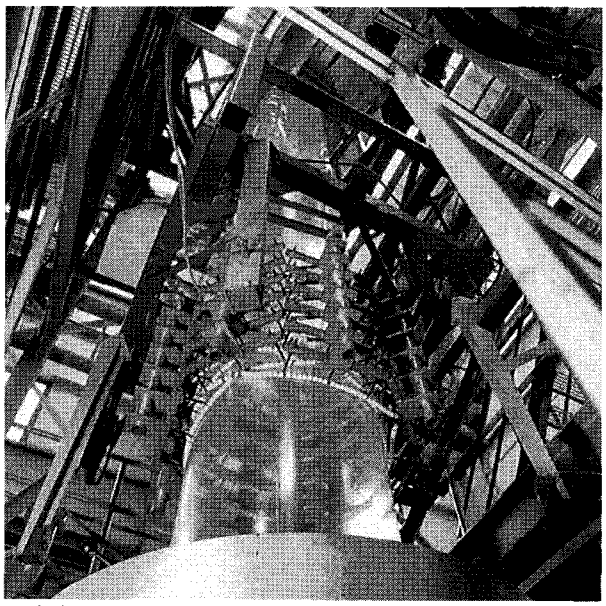
"세계적으로 품질인증에 대한 중요성이 깊이 인식되고 있어 저희도 내년에는 ISO인증획득에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연포장업계가 전반적으로 소량 다품종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유화도 생산량의 효율화, 생산의 자동화, 물류비의 절감, 불량의 최소화, 적정재고 유지에 더욱 주력할 것입니다."라고 설명하는 정 영국 전무는 정 사장의 친 동생이기도 하며 유화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있다.

금년 4월에는 경기도가 지정한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거두기도 한 유화는 어려운 업계상황에도 불구하고 장기근속자가 대부분인 것이 특징이다.

더욱이 부평 달산동에 종업원 무주택자를 위해 아파트를 두고 혜택을 제공해 주고 있는 유화는 종업원간의 팀웍과 부서간 협동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리필파우치 제품을 적극 생산하여 환경측면도 고려하는 기업 이미지를 갖추겠다는 유화산업의 다짐에서 업계의 공동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바람직한 모습을 기대해 보았다. ko

이선하 기자


▲ 유화의 공압출 라인.

업체탐방문의
월간「포장계」편집부
780-9782